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 지원

수행과제명 ...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빈곤퇴치와 양성평등 증진방안: 방글라데시
과제책임자 ... 이 선 주 연구위원
☎ Tel: 02-3156-7166 ✉ e-mail: leesut@kwdimail.re.kr

요약

방글라데시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CPS를 수립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특히 여성정책의 성장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을 지원함

1. 배경 및 문제점

- 정부는 현재 중점협력국가들을 선정하여 유·무상원조 통합지원전략 (Country Partnership Strategy: CPS)을 수립하고 있음. 통합 CPS는 수원국과의 정책협의 초기단계부터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사용되는 문서이므로 양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전략수립단계에서부터 성 주류화가 명시되어야 함

- OECD의 2006-2009년 한국의 국별 평균원조 현황 통계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베트남(2억 2천만 달러) 다음으로 많은 지원(7천 4백만 달러)을 받는 한국의 주요한 중점협력국임. 방글라데시는 1억 4천 231만 명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 2011년 1인당 국내총생산 구매력 평가(GDP Per Capita, PPP)가 1,416 달러인 최빈국가임
- 유엔개발계획(UNDP)의 인간개발보고서(2010)에 따르면 성불평등지표(Gender Inequality Index)는 116위로, 여성의 지위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권에 속함.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1년 ‘제 6차 5개년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2011년 3월 ‘국가여성개발정책 2011(Women's Development Policy 2011)’을 각료회의에서 승인하여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고 양성평등을 증진하여 빈곤을 감소코자 함
- 이 같은 방글라데시의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방글라데시 CPS를 수립하고, 한국의 개발경험, 특히 여성정책의 성장과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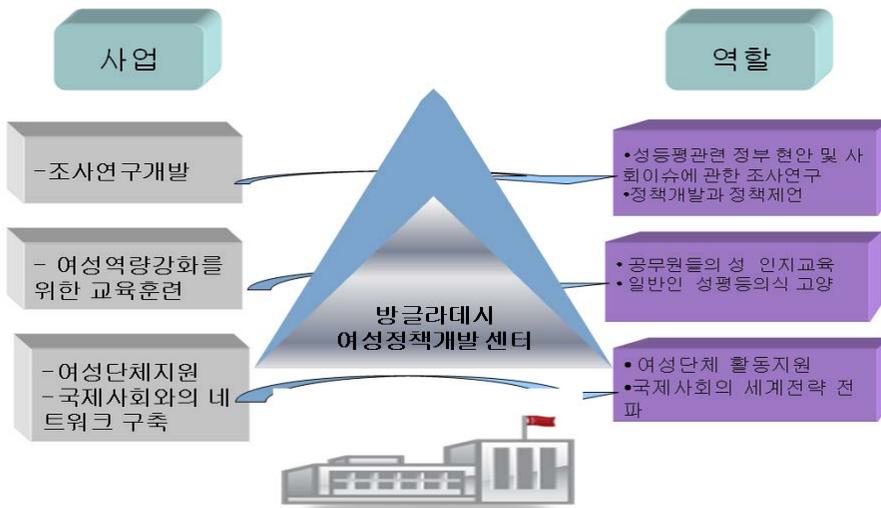
2. 조사 및 분석결과

- 방글라데시는 남성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사회로 성(gender)과 계급에 따라 공간까지도 분류됨. 여성의 교육수준은 매우 낮아 읽고 쓸 수 있는 15세 이상의 여성이 48.6% 정도임. 2005-2006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6.8%인 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9.2%로 남녀 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남

- 방글라데시는 국민대표규칙에 의해 각 정당이 선거 후보자 중 33%를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였으나, 여성 후보자의 부족으로 아직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 방글라데시는 여성아동부 주관으로 모든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 네트워크를 구(區) 단위까지 구성하였으나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함. 방글라데시 여성정책추진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문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총괄적인 기구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제안) 한국의 개발 경험 공유 :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 방글라데시 여성아동부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여성정책의 이해당사자들, 대학연구소, 여성단체들을 모두 아울 수 있는 (구)한국여성정책연구원인 한국여성개발원과 같은 기능하는 여성정책관련 기관들의 허브(hub)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설립이 필요함



[그림 1]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의 역할

- 과거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같이 여성을 교육훈련하고 정책개발을 위한 국가기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UNDP와 같은 다자간 기구를 통해 KOICA가 기여를 하는 방법이 있음



[그림 2] 방글라데시 여성정책개발센터 설립 구도

- 이 때,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공무원의 성 인지교육을 담당하는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Korean Institute for Gender Equality and Education: KIGEPE)이 함께 개발도상국에 기술적 지원을 하는 다자간 기구를 통해 다른 국가의 공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한국의 모델을 국제화함

3. 기대효과

- 유·무상 통합 CPS 수립 과정에 성 인지지적 관점을 통합하여 모든 영역과 분야에서 젠더가 크로스커팅(cross-cutting)되도록 하는데 기여함

- 한국의 경우 중점협력국가의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중점협력 국가가 우선시 하는 분야와 프로그램에 맞추어 ODA를 제공하는데 일조함
- 한국의 개발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국격제고에 기여함

주관부처 : 외교통상부 개발협력과, KOICA

관계부처 : 국무총리실 개발협력정책관실, 기획재정부 개발협력과,
여성가족부 국제협력담당관실